

# 함평자연생태과학관, 첨단기술 접목 '체험형 전시공간' 탈바꿈

### AR·인터랙티브 미디어 활용한 다양한 체험거리 마련 매주 월요일 휴무 제외 매일 오전 9시~6시까지 운영

함평자연생태과학관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16일 재개관했다. 함평군은 20일 "자연생태과학관이 단순한 곤충 표본 전시관에서 벗어나 AR(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과학관'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새 단장을 마친 자연생태과학관은 '배움'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

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호기심연구소'는 '배움'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 나만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도감 만들기, 동식물 집중관찰 등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신비한 숲속 놀이터'는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활용한 나비 미끄럼틀, 나비의 하루, 거미줄 구조작전, 꽃과 나비의 워터폴 등 나비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과학관 외벽에는 다양한 곤충들을 증강현실로 만나 볼 수 있는 AR 그래픽아트월, 신비한 숲속 영상 등 체험형 전시물이 조성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며 "올봄 가족과 함께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생태과학관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함평=김광준기자

## 영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회의 개최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연합모금사업 본격 추진 논의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 17일 영암읍사무소 2층 주민자치위원회실에서 2022년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임문석 영암읍장과 김현자 민간공동위원장님을 비롯 임원들만 참석할 가운데 2021년도 연합모금사업 추진실적, 2021년 자체감사 보고와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22년 연합모금사업으로 사회보장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게 매월 반찬지원 및 안부살피기를 확대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과 긴급구호비 및 물품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해 영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매월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35세대에 반찬 지원 및 안부살피기를 하였고, 5세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6세대에 긴급구호비 및 물품을 지원하였다. 임문석 영암읍장과 김현자 민간공동위원장은 "영암읍 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동참이 필요하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행복하고 따뜻한 영암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제3기 흥어썰기학교 닷 올려



신안군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12일간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제3기 흥어썰기학교 수강생 모집 결과 32명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20명을 선발하여 운영 예정이었지만, 면접을 거쳐 15명씩 2개반을 편성하여 총

3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4월 중 개강하여 9월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올해 운영되는 '흥어썰기학교'는 수산물판매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26명이 수료하였고,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14명의 초급 흥어썰기 민간자격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흥어썰기학교는 고령화에 따라 명절이나 주 문량이 많은 시기에 흥어를 써는 인력이 부족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2020년부터 신안군 관광협의회축산지회 주관으로 시작하여 금회 3회째를 맞고 있다.

신안=이덕주기자

## 무안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등 55억원 지원

### 관내 111개 학교 13,368명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



무안군은 2022년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

물 식재료 및 Non-GMO, 무상급식 지원 심의회를 지난달 개최해 확정된 사업비 55억원으로 관내 111개 학교 13,368명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무안군에는 어린이집 56곳, 유치원 20곳,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있다. 군은 학생 13,36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18억 9500만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억 9200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 5600만원 ▲무상급식 지원 33억 8200만원 등 55억원 규모의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안군에서는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가 품목별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 등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학교에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안전성 검사를 70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진희 농정과장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기른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성기기자

## 목포시, 삼진산단에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

### 지상 3층 규모...근로자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 기대

목포시가 삼진산업단지에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성사업에 삼진산단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센터는 2025년까지 국비 27억원, 지방비 11억 5천만원 등 총 38억 5천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1,280㎡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삼진산단에 들어설 문화복지센터는 산정농공단지, 세라믹·대양산단 등 4개 산단

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근로자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식당과 북카페, 스포츠센터, 다목적전시 및 교육장, 공공회의장, 하늘정원 등 문화·복지 편의기능이 한 건물에 집적돼 산단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문화복지센터 건립 이후에는 일반세탁소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을 묻은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



소를 별관에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복지환경개선은 청년 인구유입과도 연계되는 주요 사안이다. 삼진산단에 건립될 문화복지센터는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뀐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